



한국농어촌공사 구례지사, 지역 농가 맞춤형 영농물품 지원으로 상생 실천

한국농어촌공사 구례지사가 지역 농업인들의 영농 부담을 덜기 위해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맞춤형 물품을 지원하며 농촌 지역과의 상생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한국농어촌공사 구례지사(지사장 임문희)는 8월 12일과 14일 이틀간 구례군 관내 농민단체를 직접 방문해 농작업에 필요한 영농물품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번 지원은 농업 현장의 어려움을 살피고 농업인들과의 소통을 확대하는 한편, 지역사회와의 협력 관계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구례지사는 물품을 일률적으로 선정하는 대신 농가에서 실제 필요한 품목을 사전에 파악했다. 이를 토대로 간이용 괭이와 미니 삽, 작업용 편의 의자 등 농작업 과정에서 활용도가 높은 물품을 준비해 농민단체에 전달했다.

특히 장시간 농작업에 따른 신체 부담을 줄이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 작업용 의자와 비교적 간편하게 사용할 수 있는 소형 농기구를 중심으로 구성했다. 농업인들이 영농 현장에서 바로 사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작업 편의성과 효율성 향상에 도움이 될 것으로 구례지사는 기대하고 있다.

임문희 한국농어촌공사 구례지사는 “작은 정성이지만 영농 현장에서 땀 흘리는 농업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물품을 준비했다”며 “앞으로도 지역 농업인들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농가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고 지역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구례지사는 이번 영농물품 지원뿐 아니라 농촌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주거환경 개선과 위문품 전달, 농번기 일손돕기 등 지역 여건에 맞춘 사회공헌 활동을 매년 추진하고 있다.

앞으로도 농업인들의 현장 의견을 바탕으로 필요한 지원 방안을 발굴하는 한편, ESG 경영과 공공기관의 사회적 책임을 지역사회에서 실천한다는 방침이다.

#한국농어촌공사 #구례지사 #구례군 #농가지원 #사회공헌



 [마우스만 있으면 밤새도록 즐길 수 있는 게임!](#)
[마우스만 있으면 밤새도록 즐길 수 있는 게임! Raid Shadow legend](#)
[Open](#)

황토짚질방과 편백침대가 하나로

실내공간은 시원하게 필요한 공간만 뜨끈뜨끈

이가황토

둔